

연금부터 자산관리까지... 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대 박차

고금리 기조 마무리... 이자익 감소 비이자익 강점 퇴직연금시장 공략 신한銀 연금라운지 10곳 운영 등 은행권, 고액 자산가 확보 쟁결을

은행권이 비이자익 확대에 힘쓰고 있다. 2022년부터 이어졌던 고금리 기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은행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 이익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은행들은 비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빠르게 성장하는 퇴직연금 및 자산관리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총 1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분기 대비 3000억원 감소한 규모이며, 직전년도인 2023년 3분기와 비교해선 2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금융기관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도 1년 새 1.63%에서 1.52%까지 0.11%포인트(p) 내렸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신호탄으로 고금리 기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 규모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자이익 감소에 은행권은 비이자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이자익



서울 여의도 금융가.

/뉴스시

익은 카드, 방카슈랑스, 증권, 자산 운용 등 대출 외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을 말한다. 금리 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변하는 이자이익과는 달리 금리 하락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은행들의 비이자이익은 총 2조3000억원이다. 직전 분기보다 8000억원 늘었지만 전체 매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불과했다. 미국 4대 상업은행(BoA·시티·JB모건·웰스 파고)의 비이자이익 매출 비중이 30~35% 수준인 것과 비교해 크게 낮다.

은행권은 비이자익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 시장을 우선 공략하고 있다. 은행만의 강점인 대면 채널을 통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성 고

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은 총 382조4000억원이다. 2022년과 비교해 46조5000억원(13.8%) 늘었다. 특히 의무가입 상품이 아닌 개인형 IRP 적립액은 같은 기간 31.2%나 늘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오는 2040년에는 117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은행은 연금 특화 점포인 KB골드라이프 연금센터를 전국 13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퇴직연금 고객을 위한 1대1 전화 상담 서비스도 도입했다. 신한은행도 퇴직연금 상담과 더불어 주택연금 상담, 보험 설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신한

연금라운지를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이다.

일부 은행은 고액 자산가를 위한 프라이빗뱅킹(PB)을 연금 특화 점포와 결합해 VIP 고객을 겨냥했다.

KB금융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전체 국민 가운데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46만1000명이다. 2020년과 비교해 8만7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고액 자산가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2826조원에 달한다.

하나은행은 1억원 이상의 연금 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세무·부동산 등 종합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도 금융 자산 3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 고객에게 지점장급 직원이 투자 성향에 맞는 1:1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체어스 W'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저원가성 예금 감소 등 금융 환경 변화로 이자 마진 규모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비이자이익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은행들이 퇴직연금, 자산관리 등에서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교보생명

동계 우수 FP 자녀 해외어학연수 진행

교보생명은 겨울방학을 맞아 '2025 동계 우수 재무설계사(FP) 자녀 해외어학연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우수한 실적을 올린 FP를 선발해 자녀 해외어학연수 기회를 준다. 전속 설계를 위해 지난 2004년 도입했다. 이번에 선발한 우수 FP 자녀는 초·중·고·대학생까지 55명이다.

지난 8일부터 17박 18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사립학교에서 수준별 영어 수업을 받는다.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생활과 문화를 체험한다.

DB손해보험

설 명절 맞아 20~24일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DB손해보험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24일까지 차량 무상점검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방 점검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오토케어서비스 특약 가입고객은 브레이크 오일과 타이어 공기압 등 25개 항목 점검에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추가한다. 특약 미가입 고객은 12개 항목 점검 및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적용한다.



이승희 흥국생명 인사팀장이 11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이성일 인천 해피홈 보육원 원장(왼쪽)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흥국생명

흥국생명

인천 해피홈 보육원에 600만원 후원금 전달

흥국생명은 핑크스파이더스 배구단 흥경기에서 인천시 해피홈 보육원에 6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인천 지역 아동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이다. 보육원 아동 20여명은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고 기념품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자는 취지다. 지난해 서브 에이스 기록을 통해 적립한 600만원을 후원한 데 이어 올해도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노후 시설 보수와 컴퓨터 교체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대형 평형 청약 잇단 미달... 신축이어도 고분양가 '부담'

신규단지 중 소형 경쟁률 '고공행진' 분상제 등 희소가치 따라 쏠림 지속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서울 신축 단지에 대한 열기는 여전하다. 다만 대형 평형이 잇따라 미달돼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중대형 면적의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서울'의 당첨자 계약이 오는 14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상봉터미널 자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 지하 8층~지상 49층, 5개동, 전용면적 39~118㎡, 공동주택 총 999가구 규모다. 이 중 800가구가 일반 분양됐다.

지난달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전용면적 59㎡는 21가구 모집에 2214명이 몰려 105.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44A㎡는 40.27대 1, 44B㎡는

3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많은 119세대를 모집한 98B㎡형은 362명이 접수해 3.04대 1을 기록했다. 84세대를 모집한 98C㎡형은 119명이 접수, 1.42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두 타입 외에도 ▲98A㎡ ▲98D㎡ ▲118㎡는 공급수량에 비해 신청자가 적어 2순위 청약까지 모집했다. 118㎡의 경우 82가구 모집에 67명이 접수해 미달됐다.

노원구 월계동에서 광운대역세권 개발을 통해 들어서는 '서울원아이파크'는 지난 8일 계약포기가 이어지면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미계약 세대 558가구의 무순위 청약(줍줍)을 진행했다.

전용 74㎡ 3가구와 84㎡ 111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용 105㎡, 112㎡, 120㎡ 등 중대형 면적이다.

서울원아이파크 역시 1순위 청약 당시 1414가구 모집에 2만1219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14.94대 1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유형은 59㎡A형으로 19가구 모집에 4054명이 몰려 268.5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많은 242세대를 모집한 105㎡A형은 603명이 접수해 2.49대 1, 241세대를 모집한 120㎡A형도 521명이 접수, 2.61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112㎡B ▲112㎡C ▲120㎡C ▲143㎡ ▲145㎡ ▲159㎡ ▲161㎡ ▲170㎡는 공급수량에 비해 신청자가 적어 미달됐다.

112㎡C형의 경우 18가구 모집에 9명이 접수, 절반에 불과했다.

줍줍에 1만명이 넘게 몰려 전 타입 청약 마감에 성공했으나 가장 경쟁률이 높은 유형은 전용 74㎡로 3가구 모집에 약 1650여명이 몰려 552.67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60.63대 1로 나타났다. ▲2023년(47.66대 1) ▲2022년(31.14대 1)과 비교해 더 치열해진 결과다.

지난해 10월 강남구에 공급한 '디에이치 대치 에펠루이' 94㎡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단지로 추첨제 비율이 50%에 불과했지만 무려 5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자금 부담, 소규모 가구 수 증가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질어질 전망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단지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입지의 희소가치 등에 따라 수요 쏠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jw13@

이달 셋째 주 전국 6곳서 2177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2177가구(일반분양 80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구 동구 신천동 '더팔리스트메시앙', 경기 성남시 금토동 '성남금토A4블록신혼

희망타운(공공분양)', 경기 의왕시 청계동 '의왕청계2A1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트라' 1곳이 개관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대구 동구 신천동 일원에 '더팔리스트메시앙'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아파트 418가구·오피스텔 32실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100~117㎡, 총 41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후분양으로 공급되며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효신초가 연결한 초포아 단지로 수성구 학원가와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반경 1km 내 동대구역 및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위치해 대구지하철 1호선·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등을 통한 지역 내의 이동이 용이하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서 방배6구역 주택 재건축을 통해 '래

미안원페트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동, 총 109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120㎡, 총 48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후분양으로 공급되며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내 방역 역세권 단지로 서리풀터널·서초대로를 통해 강남 접근이 용이하다. 단지 중심 반경 2km 내 롯데마트, 서울성모병원, 서리풀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위치하며 방배초, 서문여중·고 등이 도보 통학권이다. /전지원 기자